



Photo | 이은경 집사(사랑-39)

매일묵상
2022. 10월호

발행인 | 차동혁
집필/편집 | 교역자실
진행 | 신앙운동팀
고척교회 | 서울시 구로구 중앙로 79
Tel. 02.2686.5871
www.gocheok.or.kr





주제 성구

[신명기 16:11]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마가복음 1:15]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2: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In my d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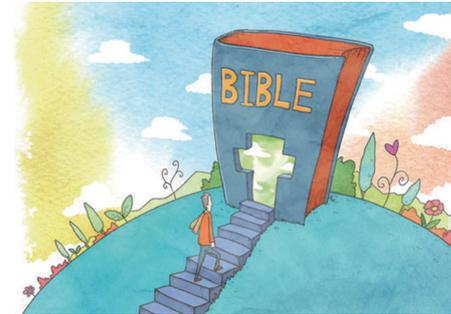
오지은 작가

한국미술협회, 용인미술협회 회원
한국여성작가협회 회원

날아가는 파랑색 원단은 무생물이지만, 공기와 바람을 타고 생명력을 가지고 날개짓 하듯 나풀거리며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원단을 보면, 원단 자체보다 그 움직임만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공기와 바람의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로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의 열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기에, 시선을 보이지 않는 것들로 돌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자유롭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날아가는 원단을 두고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여인의 목에 둘러있는 끈이 보이시나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지니고 있거나 누리고 있는 것들일 수 있을 것 같아 여인의 목에 두른 리본을 날아가는 원단과 같은 색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중요함과 함께 소중한 것들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 10월 카페 '그라티아'에는 김인숙 작가의 그림을 전시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매일 성경
매일 찬송
매일 기도
매일 감사

이름

소속
(교구-목장/부서)

목차

기도를 배우다 03

10-11월 달력..... 04

10월 [오늘의 말씀]..... 06

매일묵상을 위한 드라마바이블 활용 07

매일묵상, '위드유'가정예배 10, 24, 38, 54, 72

다니엘 해설 46

학개 해설 62

스가랴 해설 66

교회소식 76

예배안내

부록

-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어요
- 가정예배 암송구절 카드

그라티아 갤러리 | 오지은 작가의 [In my dream]

기도를 배우다

나 여기에 있나이다, 주여

나 여기에 있나이다, 주여
바람에 불리우는 밤의 이 작은 촛불
혼자서는 이 한밤 서서 타기 어려운
너무 짙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소서

나 여기에 있나이다, 주여
파도에 덮치우는 밤의 이 작은 쪽배
혼자서는 이 풍랑 헤쳐가기 어려운
너무 미친 이 파도를 잔잔하게 하소서

불길이게 하소서, 차라리
지직지직 타는 불길, 밤을 불질러
저 덧쌓이는 악의 숲을 불사르게 하소서
어둠이란 어둠을 다 불사르게 하소서

파도이게 하소서, 차라리
가라앉아 햇볕에 일렁이다가도
일어서서 허영계 밀고 가는 노도
일체 악을 말살하는 노도이게 하소서

김영봉 엮음, [사람의 기도를 위한 기도 선집], IVP 2004, 221.

박두진
(1916-1998, 시인)

1930년대 말 <문장> 지의 추천으로 등단. 박목월, 조지훈과 함께 '청록파 시인'으로 불림. 일제 말기 시대가 초래한 부정적 가치를 비판하였고, 자연을 원시적 건강성과 격렬한 의지의 대상으로 이해했으며, 점차 그리스도교 신앙을 바탕으로 인간과 사회의 조화를 추구함. 연세대와 이화여대에서 한국문학을 가르침.

10

2022
축제의 달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 빛에 다니며
(시 89:15)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 월삭새벽기도회
2 • 교회창립기념주일	3 • 개천절	4	5	6	7	8 • 한로
9 • 한글날	10 • 대체공휴일	11	12	13	14	15
16	17	18 • 5060 하프타임 하반기 개강	19	20	21	22
23 • 상강 • 찬양부 헌신예배	24	25	26	27	28	29
30 • 종교개혁주일 (이단대응세미나)	31					

TO DO LIS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2022
감사의 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전 15:10)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 월삭새벽기도회	2	3	4	5
6 • 추수감사주일	7	8 • 입동	9	10	11	12
13 • 하반기 세례입교식	14	15	16 • 수능축복 안수기도회	17 • 수능기도회	18	19
20 • 부천아가페합창단 초청 찬양예배	21	22	23 • 소설	24	25	26
27 • 대림절1주	28	29	30			

TO DO LIS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월 [오늘의 말씀]

1일	에스겔 21-23장	16일	주 일
2일	주 일	17일	에스겔 43-44장
3일	에스겔 24-25장	18일	에스겔 45-46장
4일	에스겔 26-27장	19일	에스겔 47-48장
5일	에스겔 28-29장	20일	다니엘 1-2장
6일	에스겔 30-31장	21일	다니엘 3-4
7일	에스겔 32장	22일	다니엘 5-6장
8일	에스겔 33장	23일	주 일
9일	주 일	24일	다니엘 7-8장
10일	에스겔 34-35장	25일	다니엘 9-10장
11일	에스겔 36장	26일	다니엘 11-12장
12일	에스겔 37-38장	27일	학개 1-2장
13일	에스겔 39장	28일	스가랴 1-3장
14일	에스겔 40장	29일	스가랴 4-7장
15일	에스겔 41-42장	30일	주 일
		31일	스가랴 8-9장

매일묵상을 위한

드라마바이블 활용

1. '드라마바이블'이란?

드라마바이블은 오디오성경으로 100여 명의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상급 연예인과 국내 최고 작곡가들이 참여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인수 장로, 닷과 모세는 이재룡과 장광 배우를 비롯하여 권오중(요엘), 양준모(이사야), 엄지원(에스더·룻), 예지원(마르다), 우희진(하와), 박시은(마리아), 최윤영(마리아) 등 크리스트천 배우들도 재능을 기부했습니다. 또, 배우 윤유선과 아나운서 최윤영, CCM 가수 송정미 등이 시편을 낭독하는 등 총 100여 명의 크리스트천 성우, 배우가 기꺼이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배경음악도 최고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드라마, 영화음악 감독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함을 오디오로 접할 수 있습니다.



2. 드라마바이블 활용법

'드라마바이블'을 활용하면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성경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고척교회 홈페이지]와 [고척교회 앱]에서 [매일묵상-드라마바이블]을 클릭하면, ① 매일묵상 읽기본문에 따라서 드라마바이블을 들을 수 있고, ② 2022년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읽기표와 '드라마바이블'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고척교회 홈페이지 > www.gocheok.or.kr

고척교회 앱 다운로드: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Google Play)에서 '고척교회'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하여 실행

여호와와의 대적

-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60장
- * 오늘의 말씀: 에스겔 21-23장

묵상할 본문 | 겔 21:1-7

¹또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²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³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 ⁴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⁵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꽃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⁶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⁷그들이 네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묵상 가이드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신의 칼을 뽑아 드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대적이 되어 그 칼을 가지고 의인과 악인 모두를 끊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육체는 여호와와의 칼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대적이 된다는 것도 불안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대적이 되신다는 선포는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대적이 되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대적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와의 대적이 된 사람들에게는 슬픔과 탄식뿐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누군가와 심각한 갈등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 그 때 심정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이 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의 기도

1.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2. 임마누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선포되게 하소서.
3. 세계 열방에 흩어져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소서.

비판하지 말라

찬 양

찬송가 276장

말 씬

마태복음 7장 1-6절

나누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하는 비판 그대로 다시 비판을 받을 것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빼어 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밝히 보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습니다.

질 문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언제 있었나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 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 도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지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해보세요.

암 송 구 절

마태복음 7:1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녹을 제거하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59장
* 오늘의 말씀: 에스겔 24-25장

묵상할 본문 | 겔 24:9-14

⁹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¹⁰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¹¹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녹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¹²이 성읍이 수고하므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¹³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¹⁴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 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묵상 가이드

가마 비유는 더러움에 찌든 신앙 공동체의 정화를 위해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마에 눌러 붙은 녹은 그동안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관행처럼 굳어져 왔던 불법적인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불로 열을 가해도 사라지지 않는 녹은 이미 신앙인들의 삶 속에 일부가 되어 버린 관행적 타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공동체 안에서 다른 고귀한 지체를 희생시키려는 욕구나 계획, 행동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녹이 굳어져서 아무리 불로 열을 가해도 없어지지 않게 되기 전에 미리 깨끗이 씻고 닦는 삶이 필요합니다. 내가 혹시 교회 안에서 녹이 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살펴보고 교회공동체는 세상의 녹을 제거하는 불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내 안에 제거해야 할 녹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 에스겔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게끔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해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 묵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우리 안에 제거해야 할 녹이 있다면 불과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해 주소서.
2.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정성껏 찬양을 준비하는 모든 팀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소서.
3.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겸손함으로 헌신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탐욕은 이상숭배입니다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73장
* 오늘의 말씀: 에스겔 26-27장

묵상할 본문 | 겔 26:18-21

¹⁸네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임이여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네 결국을 보고 놀라리다 하리라 ¹⁹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네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²⁰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네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 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²¹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있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묵상 가이드

두로가 영예와 인기와 세력을 구축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물질과 경제적인 힘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까지도 돈이 있으면 인기와 영광과 힘이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많은 유혹이 있겠지만 물질에 대한 욕심은 가장 강력한 유혹 중 하나입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되면 사람은 타락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유혹에는 사람을 환멸로 이끄는 거짓된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탐욕을 벌하십니다. 왜냐하면 탐욕은 이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이라는 우상은 잠깐의 쾌락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지속적이고 영원한 만족과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못합니다. 물질을 숭배하는 사람은 결국 파멸과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며 두로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봅시다.

* 물질의 풍요는 쉽게 교만을 불러옵니다.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께 대적하는 차원까지 몰아갑니다. 번영할 때 깨어서 교만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물질의 풍요와 번영의 시대에 살아가지만, 교만에 빠지지 않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2. 가브리엘 찬양대가 정성으로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릴 때 성도들이 찬양을 통해 은혜받게 하시며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소서.
3. 복한 땅을 공활히 여겨주시고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소서. 지하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 오늘의 찬송: 찬송가 64장
* 오늘의 말씀: 에스겔 28-29장

묵상할 본문 | 겔 28:20-26

²⁰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²¹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²²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니 네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²³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²⁴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²⁵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²⁶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묵상 가이드

시돈에 대한 심판의 이유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돈에 대하여 염병과 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나타나고 시돈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은 회복되어 '약속의 땅'에서 평안히 살아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다스리는 때가 곧 올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스리시며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것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시돈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되시며 주권자 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 묵상하고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전심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2. 실로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새벽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준비하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소서.
3.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대한민국과 세계열방을 위해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주소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05장
* 오늘의 말씀: 에스겔 30-31장

묵상할 본문 | 겔 30:20-26

²⁰열한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²¹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²²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²³애굽 사람을 못 나라 가운데로 흠으며 못 백성 가운데로 헤칠지라 ²⁴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 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²⁵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 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 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²⁶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흠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헤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묵상 가이드

애굽은 한번에 파멸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표현처럼 애굽 왕의 팔이 칼을 잡지 못 할 정도로 꺾이기까지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끝내 바로가 회개하지 않음으 로 애굽은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충분히 바로의 두 팔을 한번에 모두 꺾어버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오 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중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리 셧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400년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 디 하시며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바로의 강성한 힘과 권력이 결 국에는 모두 꺾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다림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임을 기억하고 기 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최대한 빨리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바로가 성한 팔로 하나님을 뜻을 따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모습이 있는지 되돌아 봅시다.

* 아직 바로의 한 팔이 성했을 때 그가 회개했다라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면했을 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 회개해야 할 모습이 있다 면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이 있다면 돌이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2. 주일2부 찬양팀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정성껏 찬양 을 준비하는 모든 팀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소서.
3. 한국교회와 전 세계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돌리는 일이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52장
* 오늘의 말씀: 에스겔 32장

묵상할 본문 | 겔 32:11-16

¹¹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네게 오리로다 ¹²나는 네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임이여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폐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¹³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 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임이여 ¹⁴그 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 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와 말씀 이니라 ¹⁵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임이여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¹⁶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름이여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묵상 가이드

애굽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며 열방들의 흥망성쇠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도덕성이 결여된 번영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은 한 개인을 넘어 나라 전체를 파멸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징벌이 있기 전에 항상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미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파멸을 슬퍼하며 노래불렀던 본문 속 열국의 여인들이 지금 이 땅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애가와 장송곡을 부르기 전에, 우리 마음의 교만함이 날로 커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히 회개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애굽의 심판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나누어 봅시다.

* 애굽의 파멸을 슬퍼하는 ‘열국 여인들’의 애가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난과 실패와 질병과 정신적 고난으로 슬픈 노래가 가득한 지오늘의 우리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 묵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소망을 찾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 소망 얻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힘을 얻게 하소서.
2. 주일 3부 찬양팀의 찬양을 흠향하시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을 준비하는 모든 팀원들에게 성령충만의 은혜를 더해주소서.
3. 세계 선교의 현장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소서.

이 시대의 파수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42장

* 오늘의 말씀: 에스겔 33장

묵상할 본문 | 겔 33:7-9

⁷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⁸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⁹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리라

묵상 가이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또한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선지자들은 항상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에 악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경고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벨릭스 총독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장차 다가올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남겨진 자들처럼 수가 많음을 내세우며 현세적 복에 집착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바벨론 땅에 거하는 자들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와 가르침을 교양 강좌처럼 여기며 마음의 귀를 닫고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행하는 사람을 찾으시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시며 에스겔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그리스도인을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지 본문과 관련하여 묵상하고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순종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해 주소서.
2. 주일오후찬양팀이 예배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수고와 헌신을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며 함께 찬양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소서.
3. 국내외 선교지를 축복하사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풍성한 말씀과 선교의 열매들이 맺히지도록 인도하소서.

믿음으로 살리라

찬 양

찬송가 251장

말 씬

갈라디아서 2장 16-21절

나 누 기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질 문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는 왜 의롭게 될 수 없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 도

죄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번 한 주간 무엇을 하면 좋을지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암 송 구 절

갈라디아서 2:21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화평의 언약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27장
 * 오늘의 말씀: 에스겔 34-35장

묵상할 본문 | 겔 34:25-31

²⁵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수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²⁶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²⁷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²⁸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 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²⁹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³⁰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라 ³¹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묵상 가이드

구원받은 새로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평의 언약'을 맺고 풍요와 안전을 보장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화평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때를 따라 비가 내리고, 땅의 소산을 얻으며 위험한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화평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때에 하나님의 선물로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죄로 인해 깨어지고 무너진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오늘도 붙잡고 나아갑시다.

삶의 적용과 물음

*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시길 바라는 영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 나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이루는 화평은 잠깐이며 진실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은 참되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화평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묵상해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으로 인해 두려움과 걱정은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 안전히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2. 수요일 찬양팀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찬양의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3. 한국 교회가 죄로 인해 왜곡되고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하며 세상 속에서 참된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새 영과 새 마음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36장

* 오늘의 말씀: 에스겔 36장

묵상할 본문 | 겔 36:24-28

²⁴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²⁵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²⁶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²⁷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²⁸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묵상 가이드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국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온 백성들을 맑은 물을 뿌려 모든 더러움과 모든 우상숭배에서 깨끗하게 씻겨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전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 우리 가운데 친히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길 기도하며 오늘도 성령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할지 말씀을 통해 묵상해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우리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소서.
2. 수요일후 찬양팀과 함께 하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소서.
3.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사 모든 우상과 죄악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마른 뼈 환상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88장

* 오늘의 말씀: 에스겔 37-38장

묵상할 본문 | 겔 37:5-14

⁵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⁶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⁷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⁸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⁹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가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¹⁰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¹¹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¹²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¹³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¹⁴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묵상 가이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마른 뼈들이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마른 뼈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됩니다. 뼈들에 힘줄과 살과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가 됩니다. 마른 뼈 환상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질 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 같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 모든 소망이 끊어진 곳에서 다시 새롭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 삶에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묵상해봅시다.

오늘의 기도

1.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가득 임하사 다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세상을 향해 힘 있게 나아가게 하소서.
2. 금성 찬양팀이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를 찬양하는 자들을 붙드사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소서.
3.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복한 땅에 함께 하사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다시 소망을 품는 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01장

* 오늘의 말씀: 에스겔 39장

묵상할 본문 | 겔 39:25-29

²⁵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²⁶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²⁷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²⁸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²⁹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묵상 가이드

모든 민족은 하나님이 곡의 군대에 행한 심판과 권능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로 친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열심으로 이루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자기 백성에게 다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모든 백성들은 부끄러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범한 죄를 뉘우치며 베푸신 사랑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 포로로 이방 나라에 끌려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시 모으시며 회복 시켜 주십니다. 심판이 있지만 심판 이후 다시 얼굴을 가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자신의 영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어봅시다.

*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얼굴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상해봅시다.

오늘의 기도

1.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모든 부끄러운 죄의 모습들을 다 버리고 부어주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2. 행복사역부와 함께 하사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는 자들 되게 하소서.
3. 죄와 탐욕으로 가득한 세계의 모든 곳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결하게 되며 다시 얼굴을 비추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새롭게 살아나게 하소서.

본 것을 다 전할지이다

* 오늘의 찬송: 찬송가 501장

* 오늘의 말씀: 에스겔 40장

묵상할 본문 | 겔 40:1-4

¹우리가 사로잡힌 지 스물다섯째 해, 성이 함락된 후 열넷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 날에 여호와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²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³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늦 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서 있더니 ⁴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이다 하더라

묵상 가이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 14년이 지났을 때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스물다섯째 해'는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 받은 지 20년이 된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말씀을 전했던 에스겔은 나라가 멸망당한 이후에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은 보여주신 환상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 빠짐없이 전부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새로운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럽혀지지 않는 곳입니다. 처음 본 것은 성전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담으로 담은 바깥과 안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며 내부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접근을 통제합니다. 우리는 담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없고 반드시 문을 지나야 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요10:9). '문'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담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에스겔은 성전 환상을 본 그대로 모두 전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보고 듣고 경험한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까?

*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지나야 합니다. 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묵상해봅시다.

오늘의 기도

1.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만나고 관계 맺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2. 희망의 복지재단과 함께 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받은 사랑과 은혜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 되게 하소서.
3.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 오늘도 길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자들이 문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하소서.

이는 지성소니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60장
* 오늘의 말씀: 에스겔 41-42장

묵상할 본문 | 겔 41:1-4

¹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여섯 척이요 저쪽 두께도 여섯 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²그 문 통로의 너비는 열 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마흔 척이요 그 너비는 스무 척이며 ³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두 척이요 문 통로가 여섯 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일곱 척이며 ⁴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스무 척이요 너비는 스무 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묵상 가이드

성전을 측량하는 자가 성소 내부를 측량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갈 때는 에스겔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성소를 측량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갈 때 에스겔은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제사장이라고 마음대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대제사장만 일년에 한번 대 속죄일 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기다려야 했고 측량의 결과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한계를 나타내는 동시에 예수님 이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짐승의 피를 통해 드리는 제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에스겔이 지성소를 측량할 때 들어가지 못하고 기다려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담을 허무신 예수님을 묵상해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화해를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를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2. 사회봉사센터와 함께 하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의 빛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소서.
3. 한국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받은 은혜를 증거하며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평강의 복

찬 양

찬송가 69장

말 씬

시편 29장 1-11절

나누기

큰 폭풍이 몰려올 때 거센 바람과 쏟아지는 비와 천둥소리와 번개로 인해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에 좌정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 현상을 넘어 보이지 않지만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질 문

천둥 번개와 같은 자연 현상으로 인해 두려워하던 때가 있었나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 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힘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가족이 서로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라는 말로 서로 축복해주세요.

암 송 구 절

시편 29:11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그리하면 즐겁게 받으리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550장
* 오늘의 말씀: 에스겔 43-44장

묵상할 본문 | 겔 43:25-27

²⁵칠 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떼 가운데에서 숫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추는 것이며 ²⁶이같이 칠 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²⁷이 모든 날이 찬 후 제팔 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묵상 가이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려면 그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과, 그 번제단이 정결해야 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운 후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도 7일 동안 제단을 정결케 하는 의식이 있었고, 여기 바벨론에 포로 된 자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제단을 세운 후에도 7일간의 제단 정결예식을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부터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면 즐겁게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단의 정결예식은 오늘날의 회개와 같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주님 용서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것을 애 통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죄의 자리를 벗어나 마음과 뜻과 행실을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은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구하며 회개하는 심령마다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실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며 넘치는 사랑으로 충만한 기쁨을 다시 샘솟게 해주실 것입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즐겁게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 7일간 정결예식을 명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회개를 원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내 고범죄를 끊고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좋아하거나 변화되기 싫어하는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전적인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오늘의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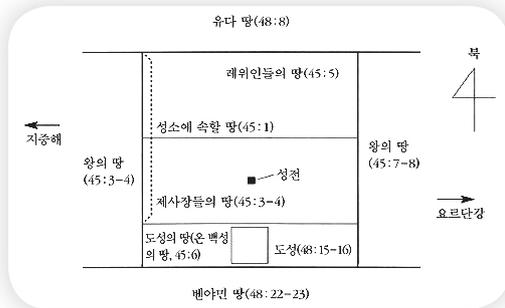
1. 나의 죄와 우상들을 깨뜨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2. L-12 하반기 목장 모임과 심방, 리더를 세우기 위한 헬퍼 교육을 통해서 소그룹이 더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소서.
3. 고척동에 있는 이단과 우상숭배의 거짓 영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타락과 향락의 문화들이 사랑과 공의의 문화로 바뀌어지게 하소서.

거룩한 땅으로 삼아

* 오늘의 찬송: 찬송가 8장
* 오늘의 말씀: 에스겔 45-46장

묵상할 본문 | 겔 45:1-4

¹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²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오백 척이요 너비가 오백 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신 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³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⁴그 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묵상 가이드

45장과 48장은 회복된 땅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여호와 삼마'(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여호수아 때에 제비를 뽑아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열두 지파에게 나누어 주신 것처럼, 또 다시 열두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 각 지파별로 영원한 기업이 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가운데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성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거룩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나는 공예배와 개인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예물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 현재 내가 사용하는 마음과 물질과 시간의 우선순위를 적어봅시다. 예배를 나의 삶의 중심에 두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1.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 속의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2. M-12 리더십에게 지혜와 연합의 마음을 주셔서 지체들의 형편을 두루 살피게 하시고 각 마을과 목장마다 형제애와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3. 전세계 선교지마다 코로나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후원과 기도가 줄어들지 않도록 꾸준히 보살펴 주소서.

물이 흘러 되살아나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182장

* 오늘의 말씀: 에스겔 47-48장

묵상할 본문 | 겔 47:8-12

⁸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라 ⁹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¹⁰또 이 강 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¹¹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¹²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묵상 가이드

본문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점점 큰 강물이 되어 만국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 곧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요 7:38-39)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영혼 구원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땅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물”(계 22:1-2)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성령은 믿는 자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며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사막과 같고, 사해 바다와 같은 곳마다 성령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우리 가정과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구원 받아야 할 나의 태신자를 적어 봅시다.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

1. 성령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소서.
2. 남선교회 연합회 임원들을 통해서 남성 성도들 간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의 선한 사업들을 세워가게 하소서.
3.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의 파괴의 영이 그치고 생명의 성령의 영으로 역사하소서.

1. 제목

본서의 명칭은 저자이자 주인공인 '다니엘'의 이름을 따라 붙여진 것으로,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입니다. 한편 본서는 헌신과 충성이 담긴 '빛의 책'으로 어두운 세력 속에서 밝은 빛을 발하는 빛 된 자의 행실과 그 빛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책입니다.

2. 저자와 기록연대

저자에 대해서는 본서 자체가 다니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9:2:10:2). 예수께서도 이 책의 저자를 다니엘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이 책은 B.C. 539년 고레스에 의해 바벨론이 함락된 직후인 B.C. 530년경에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서는 부분적으로 1인칭으로 기록된 것을 보아 기술된 당시의 사건과 동시대에 구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그 다음 세대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책은 B.C.2세기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비밀을 간수하고 봉합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었습니다(단12:9). 본서가 B.C.2세기에 집필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본서에 기록되어진 예언 등은 이 책이 그 이전에 기록되었음을 입증하여 줍니다. 일찍이 쿰란에서 다니엘서는 정경으로 받아들여졌고, 신약 기자들에게도 본서가 예언서로 받아 들여졌습니다.

3. 시대배경

B.C. 626년 앗수르 제국에 반기를 든 바벨론은 612년에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켰습니다. 또한 B.C. 605년에는 애굽마저 정복함으로써 명실공히 초강대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줄곧 선지자와 정부의 관리로서 활동하였으며 그의 이러한 활약은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 정복될 때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4. 목적

다니엘은 바벨론 궁정에 거하면서 체험한 경험들과 그가 받은 환상과 계시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기록의 목적은 이방 신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우월성과 유일성을 입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벌을 받아 이방의 포로가 되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세상 권세들은 사라질 것임을 예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다니엘이 목격한 환상에 대한 기록은 장차 메시아가 임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임을 예고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증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5. 구조와 내용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부분(1~6장)은 역사적 사실을, 둘째 부분(7~12장)은 환상과 그 해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주로 역사적인 것, 즉 여섯 가지 역사적 이야기들이 나오고 후반부에서는 주로 예언들, 즉 네 가지 환상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서로 대조하면 전반부는 암흑의 역사이고 후반부는 광명의 역사입니다. 에스겔이 포로가 된 백성들을 성전에 대한 기대로써 격려하고 있었을 때, 다니엘은 바벨론 왕가의 권세자들에게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불신자들은 다니엘서의 네 개의 세계 제국 [바벨론, 바사, 헬라 및 로마]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많은 비평을 해 왔습니다. 비록 이방인들이 팔레스타인을 한때 지배했었을 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실제로 다스리셨으며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섭리 가운데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6. 교훈

* **역사적인 교훈:** 본서의 예언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즉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 **교리적인 교훈:** 본서의 가르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세상에 현존하는 권세자들의 실정을 '정죄'하고 동시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 **기독교적인 교훈:** 본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왕국을 부수는 거대한 돌로(2:34,45), 인자로(7:13), 옛적부터 계시는 자로(7:22), 기름부음 받은 자(9:26) 등으로 묘사되어 나타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78장

* 오늘의 말씀: 다니엘 1-2장

묵상할 본문 1 단 1:6-9

6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7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8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9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묵상 가이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본래 이름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니엘 :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 하나냐 :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 미사엘 :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 아사랴 : 여호와가 도우신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 네 사람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바꾸었습니다.

- 벨드사살 : 벨이며,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벨은 바벨론 최고의 신 마르둑을 가리킴)
- 사드락 : 아쿠의 명령(아쿠는 달의 여신)
- 메삭 : 누가 아쿠와 같은가?
- 아벳느고 : 느고의 꿈(느고는 마르둑의 아들).

이렇듯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점령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뜻을 세우고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비록 바벨론의 문화와 법제 아래 살아가는 포로지만 신앙의 포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제물을 먹지 않고 신앙을 지킨 이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높여 주셨습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현재 나는 세속의 문화중 어떤 것들에 많이 영향받고 휩쓸리고 있습니까? 그것들 중 나의 신앙을 약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세워야 할 뜻은 무엇입니까? 적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신앙의 정절을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2. 여전도회 연합회 임원들이 교회 여러 봉사과 행사를 준비할 때 지혜를 주시고, 많은 지체들이 동참하여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3. 한국교회가 코로나의 우울함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줄 수 있도록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지혜를 모으고 섬기게 하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72장

* 오늘의 말씀: 다니엘 3-4장

묵상할 본문 | 단 3:14-18

¹⁴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¹⁵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¹⁶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¹⁷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다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¹⁸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묵상 가이드

소록도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천우열전도사는 집회를 갈때마다 “소록도는 ‘찌라도’입니다. 소록도의 ‘찌라도’ 신앙을 함께 갖읍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소록도에 봉사를 오는데 소록도에 와서 놀라는 것이 소록도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소록도에 있는 다섯 교회는 매일 새벽4시에 한번, 정오에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후원해주시고 봉사해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봉사자들이 은혜 주러 왔다가 오히려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보호나 인도하심이 없을 ‘찌라도’ 주님의 계획과 선하심을 신뢰한다는 ‘찌라도’의 신앙. 하박국 선지자처럼 전쟁이 일어나 망해서 먹을게 아무 것이 ‘없어도’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없어도’(합3:17)의 신앙. 이런 고귀한 신앙이 소록도에 있습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찌라도’의 신앙으로 “내 은혜가 족합니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과거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실 때’ 나의 믿음의 민낯은 어떠했습니까?

* 현재 주님을 향한 불평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찬양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마음을 다루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

1.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게 하소서.
2. 감사위원회 봉사자들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재정사용을 바르게 분별할 지혜를 주시고 공의와 덕을 함께 세우도록 인도하소서.
3. 이 땅에 생태계 파괴와 환경 오염들이 줄어들도록 법제와 사회문화들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소서.

하루 세 번씩 기도하며

* 오늘의 찬송: 찬송가 191장

* 오늘의 말씀: 다니엘 5-6장

묵상할 본문 | 단 6:10-14

¹⁰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¹¹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¹²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삼십 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¹³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¹⁴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묵상 가이드

본문에서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있음에도 목숨을 걸고 기도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는 구절처럼, 다니엘은 특별한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경건의 시간을 갖었습니다. 하루에 세 번 작정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하루의 삶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에서 이런 기도가 개인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기원하는 중보적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 여러 왕에게 총리로 쓰임 받은 지혜의 원천이 기도에 있었습니다. 여러 예언을 해석하고 여러 환상과 예언을 받은 것도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으로 서길 소망합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에 갈급한 마음을 구해봅시다. 기도시간의 우선순위를 더 높여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2. 서울서남노회와 예장통합총회를 이끄는 목사님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시대 연약한 교회들을 도우며 섬기게 하소서.
3. 고척아이파크 입주민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고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할 분들을 많이 보내주소서.

십계명

찬 양

찬송가 202장

말 씬

출애굽기 20장 1-17절

나누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십계명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게 하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질 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 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가족이 한주 동안 십계명을 암송해 봅시다. 십계명 암송 대회를 열고 다 암송한 가족에게 시상을 해보세요.

암 송 구 절

출애굽기 20:2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우리를 다스릴 영원한 왕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8장
* 오늘의 말씀: 다니엘 7-8장

묵상할 본문 1 단 7:13-14

¹³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¹⁴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묵상 가이드

다니엘은 또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권세를 받고 왕으로 즉위하실 것을 가리키는 환상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성도와 함께해 주실 것이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권세로 모든 자로부터 높임을 받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악의 세력이 판을 치지만 창조 때부터 역사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영원하신 왕이 되십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왕의 꿈을 해석해 주던 다니엘이 직접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무엇이며 또한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여러 환상을 보여주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1. 우리를 다스릴 영원한 왕 되신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2.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을 먹고 기도하며 예배함으로 영적 부흥을 다시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3. 코로나와 각종 질병으로 힘겨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응답하십니다

* 오늘의 찬송: 찬송가 86장
* 오늘의 말씀: 다니엘 9-10장

묵상할 본문 1 단 9:20-23

²⁰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²¹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²²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²³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묵상 가이드

다니엘은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하여 계속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주의 크신 은총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은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고 지속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 다니엘은 주의 크신 은총을 입어 모든 환상과 일(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래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1.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2.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어 상생하며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3.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별처럼 빛나는 인생

* 오늘의 찬송: 찬송가 516장

* 오늘의 말씀: 다니엘 11-12장

묵상할 본문 1 단 12:1-3

¹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²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³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묵상 가이드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있을 것이며 성경이 예언한 방법대로 임할 것입니다. 12장에서 보여 주는 역사의 종말은 천사들의 영적 전쟁, 믿음을 시험하는 환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구원, 영생의 부활 등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종말에 관한 계시를 보여 주는 것은 환난이 찾아와도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다보면 믿음을 지킬 것인지 배교의 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들은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께서 미래의 종말을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킬 것인지 배교의 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1.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되어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2.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주소서.
3.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소서.

1. 저자

학개라는 이름은 ‘명절에 속한’, ‘명절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을 가리키는지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절기 기간 중 태어났기에 그런 이름을 얻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학개는 자신의 부모나 족보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에서 돌아왔다는 것과 포로 이후 예루살렘에서 선포한 최초의 선지자였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2. 배경과 목적

주전 538년에 바사 왕 고레스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에스라 1장). 유다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지만 생존의 염려와 정치적인 어려움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뒤에 학개 선지자가 등장하였습니다.

학개가 전한 메시지의 목적은 백성들로 하여금 중단된 성전 건축을 마치는 일에 매진하도록 독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큰 자극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3. 구조와 내용

학개는 전체 2장으로 서론과 네 개의 짧은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각의 메시지는 “여호와와의 말씀이 임하니라”(1:3;2:1,10,20)로 시작합니다. 이 네 개의 메시지는 구체적인 날짜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모두 바사 왕 다리오1세 제 2년(주전520년)에 선포한 메시지들입니다.

- 1) 성전 재건을 촉구함(1:1-15) : 성전에 대한 무관심을 책망하고 백성들의 행위를 살펴볼 것을 권면합니다.
- 2) 격려와 영광에 대한 약속(2:1-9) : 새로 지어질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덜 화려할지 모르지만 이전의 성전을 압도할 큰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 3) 정결한 생활을 요청함(2:10-19) :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한 행위 때문에 예배마저 부정해졌음을 경고합니다.
- 4) 스룹바벨에 대한 미래의 축복(2:20-23) :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결코 잊지 않으심을 확인하고자 유다 왕족 스룹바벨을 당신의 종으로 택하심과 미래에 대한 축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08장

* 오늘의 말씀: 학개 1-2장

묵상할 본문 1 학 1:3-6

³여호와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⁴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나 ⁵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⁶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삯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묵상 가이드

학개는 포로귀환 시대의 선지자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 가장 먼저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자신들의 집을 짓고 생활하는 것에만 바빴습니다. 그들은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버려둔 채 자기들의 집만을 가꾸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비유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우선권을 두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헛된 수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십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에 두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된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전을 황폐하게 하는 우리의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1. 기도와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게 하소서.
2. 기름부어 세워주신 담임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3.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1. 저자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입니다. 그는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사장 잇도의 손자입니다. 스가랴는 선지자 학개와 동시대 사람으로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처럼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제사장 출신답게 성전과 제의적 문제, 정결함 등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예언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2. 시대적 배경

스가랴서는 전반부(1-8장)와 후반부(9-14장)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1-8장은 학개 시대와 동일합니다. 즉 주전 538년에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귀환하였습니다. 본국으로 귀환한 이들은 주전 536년부터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으나 여러 가지 방해로 2년(주전 534년) 만에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로 하여금 성전 재건 공사를 독려케 하여 주전 520년에 공사가 다시 시작되어 주전 516년에 성전 재건 공사가 끝나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전반부의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9-14장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분명합니다. 다만 주전 480-470년경으로 다리오 1세가 몰리나고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3. 기록목적

스가랴서의 기록목적은 전반부(1-8장)와 후반부(9-14장)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성결한 신앙을 확립하는데 있었습니다. 이들은 본국으로 귀환했으나 영적인 무관심과 율법에 대한 무지 그리고 도덕적인 불의한 삶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며 무너졌던 성결한 삶의 회복을 강조하였습니다. 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메시아 왕국의 승리와 영광을 마음 속에 간직하기 위하여 기록하였습니다.

4. 구조와 내용

스가랴서 전체 14장의 말씀 중에서 금식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8-9장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메시아가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환상과 약속이 펼쳐집니다.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비전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과 동일합니다.

1-6장 : 스가랴가 밤에 본 여덟 개의 환상

- 1)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1:7-17)
- 2) 네 뿔과 네 대장장이(1:18-21)
- 3) 측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2장)
- 4) 주의 사자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3장)
- 5) 순금 등재와 두 감람나무(4장)
- 6) 날아가는 두루마리(5:1-4)
- 7) 에바 속에 든 여인(5:5-11)
- 8) 네 대의 병거(6:1-8)

7-8장 : 금식에 관한 질문의 답

9-11장 : 시온의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미래

12-14장 : 배척을 당하나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두실 하나님의 왕

스가랴서는 회복된 이스라엘의 중심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동시에 오실 메시아의 희생적 죽음을 예고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

* 오늘의 찬송: 찬송가 527장

* 오늘의 말씀: 스가랴 1-3장

묵상할 본문 | 속 1:1-3

¹다리오 왕 제이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잇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²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³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묵상 가이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하여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중단하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잇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스가랴에게 첫 번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사랑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도 결국은 떠나간 당신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가 망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요 평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돌이켜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1.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 듣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2. 교구와 부서를 섬기는 부교역자들에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서로 동역하며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소서.
3. 주변 이웃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고척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존재함이 이 지역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

모든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 오늘의 찬송: 찬송가 197장

* 오늘의 말씀: 스가랴 4-7장

묵상할 본문 | 속 4:6-10

⁶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⁷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⁸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⁹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¹⁰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와 눈이라 하니라

묵상 가이드

스가랴가 환상의 의미를 묻자 천사는 뜬금없이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분명히 이 환상은 스룹바벨에 의해 시작된 성전 재건 사업과 관련된 것이고, 성전 재건이 오직 하나님의 간섭과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여 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일은 성취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어 자신감이 넘칠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힘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힘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될 수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1.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힘의 원천이 되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2. 은퇴 향존직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지며 못 성도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복된 노후가 되게 하소서.
3. 이 땅의 전쟁과 기근의 소문이 그치게 하시고 극심한 환경문제와 양극화 문제도 지혜롭게 해결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소서.

먼저 사랑하심

찬 양

찬송가 563장

말 씬

요한1서 4장 16-21절

나누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는 두려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질 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 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게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한주 동안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족이 서로 표현하며 사랑을 나누어 보세요.

암 송 구 절

요한1서 4:19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 이라”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완전한 평화와 행복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21장

* 오늘의 말씀: 스가랴 8-9장

묵상할 본문 | 속 9:16-17

¹⁶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 떼 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 같이 여호와와 땅에 빛나리로다 ¹⁷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묵상 가이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제각각 다르지만 저마다 내세우고 추구하는 바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바로 평화와 행복입니다. 평화와 행복을 추구한다면 분명 우리 사회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해야만 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평화와 행복을 향한 수단과 방법이 저마다 다르고 그 과정에서 저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평화와 행복을 이야기하지만 올바른 방법이 아니면 결코 그것에 도달할 수도 이를 수도 없습니다. 스가랴서에서는 평화와 행복을 향한 명확한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명령을 지켜 행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찬란한 영광의 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완전한 평화와 행복입니다.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형통함과 아름다움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게 될 풍성한 소득이며 나아가 미래까지 주어지는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나타낸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찬란한 선물이란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 소망을 품고 기대하며 말씀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삶의 적용과 물음

* 기약 없이 이어지는 어려운 형편과 곤고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은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 세상의 방법으로는 결단코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없음을 알고 있지만 오히려 세상의 방법에 더 얽매어 평화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기도

1. 평화와 행복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2. 시무향존직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는 사역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주소서.
3.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 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의 손길을 더하여 주소서.

교회소식

10월

교회

- 월삭새벽기도회 | 1일(토)
- 교회창립기념주일 | 2일(주일)
- 5060하프타임 개강 | 18일(수)
- 찬양부 헌신예배 | 23일(주일)
- 종교개혁주일(이단세미나) | 30일(주일)

교회학교

예배시간 안내

G O C H E O K . P R E S B Y T E R I A N . C H U R C H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은혜대예배당
	2부	오전	9:00	은혜대예배당
	3부	오전	11:00	은혜대예배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3:00	은혜대예배당
수요기도회	1부	오전	10:00	은혜대예배당
	2부	오후	7:30	은혜대예배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00	은혜대예배당
	2부	오전	6:00	은혜대예배당
금요성령집회		오후	8:30	은혜대예배당
L-12 리더모임	수요일	오전	11:00	교구별 장소
		오후	8:30	은혜대예배당
M-12 리더모임	수요일	오후	8:40	세미나실(본관5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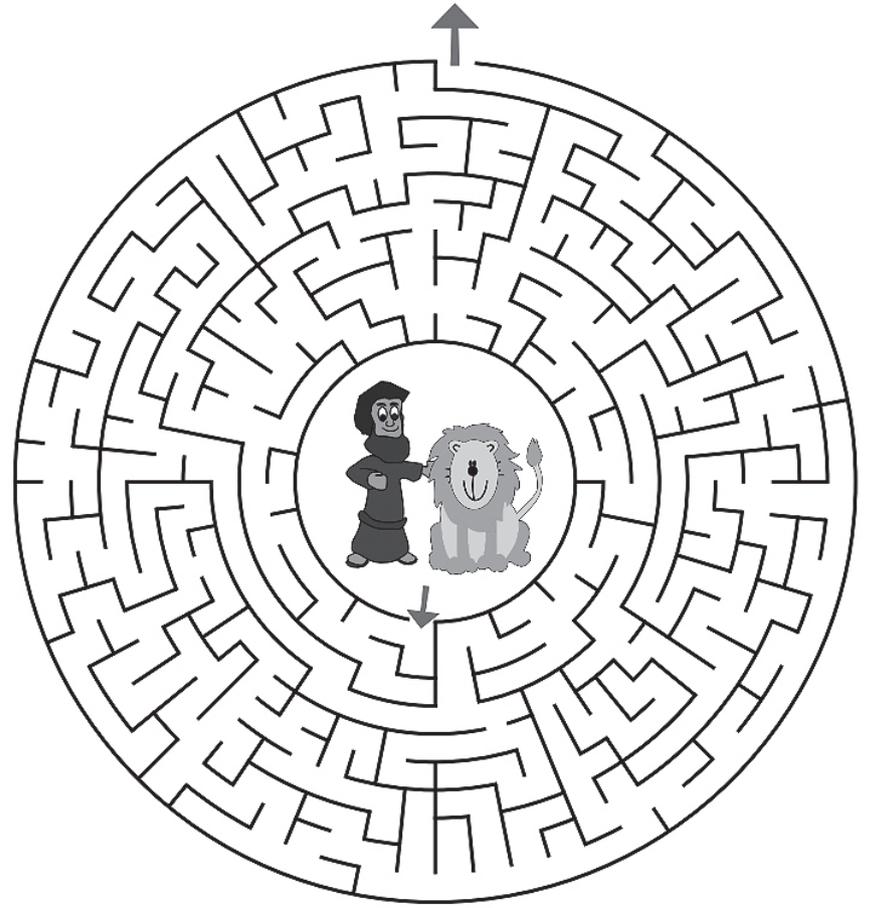
상담실: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e-메일 상담으로 운영합니다.
gocheok1004@gmail.com 로 메일 보내주세요.

영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1층
유아 1, 2부	주일 오전	9:00, 11:00	꿈의교육관 1층
유치 1, 2부	주일 오전	9:00, 11:00	꿈의교육관 5층
유년 1, 2부(초1-3학년)	주일 오전	9:00, 11:00	꿈의교육관 지층
소년 1, 2부(초4-6학년)	주일 오전	9:00, 11:00	꿈의교육관 4층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꿈터 채플(본관B1층)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문화공간 채움(본관1층)
청년공동체	주일 오후	1:00	은혜대예배당
은빛시니어학교	목요일 오전	10:30	꿈터 채플(본관B1층)

* 모든 예배는 [고척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어요

- 다니엘 6장 말씀을 읽고,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을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조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이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마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행되미 주으셨느니라

아태부음 가정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받지 마라